"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통중에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 오늘은 공동생활 2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을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 박순옥전도사(정인수장로) 어머니 장례식이 지난 9일(수)에 있었습니다.
-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나송주 집사 · 이윤희 권사 가정 (공동생활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11 호
2022년 3월 1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공동체, 신앙의 실제

얼마 전 학생들과 함께 볼링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저녁 비용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기량을 한껏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경기가 다 끝난 후 이런저런 평이 오가고 점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중에서 인상적으로 남았던 소감은 바로 자신이 인터넷 게임으로는 볼링 점수가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상으로 하는 볼링 게임에서는 점수가 잘 나와서 자신이 볼링을 좀 치나 싶었는데, 실제로 볼링장에 와서 해보니 영 아니였다고, 쉬운 게 아니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모든 것이 실제로 해보면 생각처럼 쉽지 않지.'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공동생활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볼링에 얽힌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기독인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어쩌면 그저 관념에 머무는 신앙은 아닐까. 아님 실제가 아닌 자신이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그 곳에서만 머물면서 자신은 잘한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 공동생활에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어려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름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열심당원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내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전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실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믿음을 보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귓전을 때리고 가슴을 울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삶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 놀라운 공동체의 장은 단순한 가상의 게임이 아닌 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고된 훈련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나라도 아니요, 상상 속에서 뜬 구름을 잡는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셨고, 지금도 이뤄가시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허락받았고 지금까지 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방공동체에서 지금까지 어떤 모양이었던지 이 삶을 지속해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실전이 그렇듯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살게 하신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 믿음을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를 매일 매 순간 단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진짜 실력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자동으로 맞춰주는 선을 따라 공을 굴리는 가상의 게임처럼 그저 그 정도의 실력에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실제를 살아낼 무한한 사랑과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머문다면 내가 아닌 주님께서 반드시 이뤄가실 것입니다.

디아코니아 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
<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복음 4:1-42
제목 :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다
인도 : 정태일 목사　　기도 : 진정행 권사
찬송 : 88 265 93

1. 예수,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다
   1)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경유하시다.
      예수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다.
      여자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39>
   2)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3) 그리스도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성별, 민족, 모든 관계)

2.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1) 대화 주제 1 : 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14>
   2)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삶을 누리자.(참 소망, 삶의 질)

3.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
   1) 대화 주제 2 : 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23-24>
   2) 예수님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 받는 시간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하는 예배이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예배를.(대속의 은혜를 감격, 입자)

성서일기

평 화

평화는 생명을 주는 힘이다.
평화는 깨어진 것을 치유하고, 소모된 것을 다시 채우며, 얽히고 억눌린 것을 풀어준다.

평화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불일치가 있는 곳에 조화를,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불러온다. 또 분열이 있는 곳에 온전함을, 절충과 사기가 있는 곳에 일관성을 가져온다.

평화는 존재의 모든 영역을 꿰뚫는다.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도, 영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영역도 두루 관통하는 것이다. 만약 평화가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혀 참된 평화가 아니다. 순전히 공상일 뿐이다.

평화는 하나님으로 온다. 그러나 평화는 온 지구를 포용한다. 그리고 그 힘이 지배할 때는 사람과 구조를 변화시킨다.

평화는 목표에 있어서는 우주적이다. 그렇지만 조용히, 때로는 알아차리지 못하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평화가 다스리는 곳에는 참 자아와 현 자아, 여자와 남자, 사람과 하나님의 통일이 있다. 거기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통일이 있다. 성전은 정화되고, 몸은 치유된다.

이와 같은 어떤 것도 저절로 또는 진공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다.

이 책 전체에서 우리는 평화의 길이 수동성이나 체념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살펴봤다.

평화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나 자신에게만 빠져 있는 사람, 또는 고요한 삶에 만족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양심의 빛 안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의무의 짐이 없이는 다가오지 않는다. 평화는 사랑의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평화는 희망과 용기, 비전과 헌신이 있어야만 꺾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혹독한 수행이다. 그래서 평화를 찾는 길은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없다. 평화는 단순히 종지부를 찍거나,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그런 문제일 수가 없다.

결단코 아니다!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다른 이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체들의 삶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평화주의자 예수]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이사야서 42 : 1-4	인도자
*예배의 찬송	33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로마서 8 : 1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87, 144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대표기도)		나송주집사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마태복음 26 : 6 - 13	설교자
성가대 찬양	은혜로다	생활공동체
설 교	"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리자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57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516(1)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나송주 이윤희 / 봉헌위원 : 전선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오니,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채워주십시오. 아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리자

여자,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리다.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7> 마가복음에는 "그 옥합을 깨뜨리고"<14:3> 부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향유는 삼백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매우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너희도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려라. 일반적으로 향유를 붓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12> 말씀하시며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13>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여자처럼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리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 무디며 받은바 은혜를 쉽게 망각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삶의 자세 때문에 믿음의 행위와 헌신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의 행위와 헌신의 원형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리십시오. 깨뜨려야 할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장미숙 권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우리 꾸러기들은 모두 함께 있으면 너무 너무 행복해 합니다. 상큼하고 귀여운 얼굴로 꺄르르 웃는 미소에 선생님들 심장은 매번 터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교생 중 반인 2명이 아파서 학교에 못나왔는데 드디어 다 함께 모이는 첫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안 아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린 친구들이 오랜만에 온 친구들을 맞자 뛰어가서 안아줍니다. 서로 너무 반가운 나머지 흥분에 학교를 정신없이 빙빙 돕니다. 온 몸에서 터져 나오는 신나는 에너지로 아주 즐거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모임 후 꾸러기들이 다시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잡기놀이부터 책읽기, 종이접기, 병원놀이 등 수시로 놀이가 바뀌가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 중 요즘 핫하게 하는 놀이는 연극놀이입니다. 나름에 스토리와 역할을 맡아서 맞춰가면서 연극을 합니다. 꾸러기들은 연극하느라 바빠서 손님은 항상 선생님들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연을 올리고 엔딩에 함께 인사를 하는데 뿌듯하고 즐거운 표정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 좋은 공연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첫날에 신나게 놀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정리를 시작했을 때 한 아이가 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물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고 아이가 힘들어하여 급하게 어머니가 오셔서 데리고 가셨는데 어머니와 아이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팠던 친구들은 학교에 나오고, 기다린 친구들이 집으로 가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 걸린 친구를 포함에 우리 꾸러기들이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꾸러기에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수요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어서 하루 쉬긴 했지만 월, 화, 목, 금요일에는 꽉꽉 채워서 시간표대로 잘 지냈습니다.

1,2학년들은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수업이 외부에서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의정부 민락동에서 수영을, 화요일에는 양주 삼숭동에서 창의사고력 수업을 합니다. 1학년들이 이제 종이 울리면 다음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좀 알아차렸지만, 밥을 먹고 식기와 가림막을 정리하고 양치한 다음에 수업을 가야 하는 일정이 아직은 복잡하고 낯설어서 계속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그래도 수영도 재밌고, 창의 사고력 수업에서 몇 가지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좋아서 오가는 길에 걱정됐던 멀미는 한 명도 하지 않았어요.

올해 바뀐 일 중에 '꾸러기와 놀기'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금요일 3교시 자율학습 시간에 순번대로 가기로 했는데, 그 첫 번째로 3학년 친구들이 꾸러기학교에 가서 재밌게 노느라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고 하네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즐거웠던 일은 오랫동안 멈추었던 트램펄린을 다시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낡은 트램펄린 교체 작업을 하느라 못 탔는데 이제 고학년은 4명, 저학년은 5명, 고, 저학년이 섞이면 4명까지 한 팀이 되어서 기본 5분씩 타기로 약속을 정하고 방방 뛰었습니다. 덤블링과 공중제비 기술까지 선보이는 선배들도 있어서 더 신났어요.

코로나 영향으로 개학 이후 결석생이 없는 날이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며... 조금씩 나아가고 적응하고 또 도전하는 어린이학교입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학교생활 첫 주, 많이 따뜻해진 날씨 속에서 바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1학년들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여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참 많이 합니다. 멋쟁이들은 모두 밥도 잘 먹고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하며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목요일 오후, 열린 수업 시간은 멋쟁이 교양수업으로 목사님께 멋쟁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선배들과 후배들이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에는 멋쟁이 총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장, 부회장이 선출되었고 그동안 수고한 전 회장, 부회장은 역할을 넘겨주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학교생활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과 선생님이 계셔 아쉬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큰 탈 없이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매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새로운 구성원과 함께 또 한 번 힘차게 생활할 멋쟁이학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박예나 >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시간은 흘러 지금에 도착했습니다. 너와 나를 가로막았던 답답한 마스크를 이제는 좀 훌훌 털어 버려도 될 것 만 같은 마음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가족들이 잠자리에 누워 기도할 때 아이들 입에서도 코로나가 싫다는 기도보다 전쟁을 이야기 하고, 산불을 이야기 하며,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 대한 기도가 앞서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공동체건물 이곳저곳이 북적북적합니다. 분주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깨끗이 청소하는 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참 오랜만이다~반가워~그리웠어 하는 소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스크위 눈빛에서 크게 들려옵니다.

지킴이 라는 소리가 어색할 정도로 하민이가 지킴이 하러 가자라고 말하자 하온이가 지킴이가 몬데? 라고 묻습니다.

며칠 전 하온이와 하성이가 재롱이, 꾸러기 졸업사진첩을 보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민이 오빠는 언제부터 여기 살았쩌? 라고요. 그러면서 나보다 오빠는 많이 있어서 좋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동생활 6년차에 들어선 저에게 둥이들의 물음은 깊은 여운을 주었습니다. 내가 살았던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몇 일간 가족들끼리 집콕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사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지 하는 고민을 끝없이 하게 되는데 정작 나는 어떤 엄마가 되어 아이들을 대할 것인지를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나의 모습과, 공동생활을 대하는 나의 태도 또한 반추해봅니다. 아이들이 온전히 경험했던 집은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살았던 마음의 저 조차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처럼 몇 년간 함께 살았던 식구들은 어떤 마음일지요...경험했던 모습을 따라 살게 되는 나의 삶에서 어떤 집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하성이의 기도가 제 마음에서 쿵쿵 울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얫두그리뜨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방 식구들의 집에서 꼬꼬마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아코니아사랑방 차태옥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시편 17편
인 도 : 정재훈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십수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폭격에 많은 민간인이 재산과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속히 이 폭력이 멈출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다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새터 마을을 위한 기도>

(1) 모든 가족이 잘 연합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새터마을 가족들이 각자의 삶을 잘 정리하여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2) 새터민 정착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잘 준비되도록
(3) 이 땅의 새터민들과, 복음과 자유의 품을 갈망하는 모든 가난한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들이 이 땅에 든든히 그리고 풍성히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공동생활 기념주일을 위한 기도>

다음 주는 24주년 공동생활 기념 주일입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사랑방의 정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이번 주일은 생활공동체 2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공동생활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 지금의 모습으로 공동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하지 못했던 성가대 찬양도 생활공동체 식구 전체가 모여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눌 떡과 음료를 준비하고, 주변 정리와 주일 예배 준비를 하는 시간은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방공동체의 귀한 공동생활 식구들의 이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장영미 전도사 >